

전남 드래곤즈, 홈에서 1위 탈환 나선다

17일 광양에서 K리그2 21라운드 충남아산FC와 대결 FC 안양과 승점 2점 차 ... 화끈한 공격으로 승리 노려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드래곤즈가 1위 탈환에 나선다.

전남은 17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2 2021 21라운드 충남아산FC와 홈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앞선 부산 원정에서 이종호의 봉대 투혼 속에 값진 승리를 만들었다. 이종호는 전반전 공중볼 다툼 도중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후반 35분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를 가르면서 팀의 승리를 불렀다.

이와 함께 FC 안양을 2점 차로 추격하면서 1위 탈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은 또 부산전 승리로 올 시즌 원정에서 5승 6무의 전적을 남겼다.

올 시즌 원정 무패 중인 전남이지만 안양에서는 4승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은 '잔물수비'를 앞세워 홈 전적에 승리를 더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전남은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최소실점(20경기 12실점) 팀의 위업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아쉬운 것은 득점이다. 무실점을 이어간 4경기에서 2득점에 그치면서 최근 4경기 전적은 2승 2무다.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한 만큼 '득점'이 전남의 화두다.

전남은 체력열세의 충남아산을 초반부터 공격해 승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안방을 찾는 충남아산은 코로나19로 순연된 경기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쁜 7월을 보내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4일, 8일에 이어 12일에도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충남아산과의 상대 전적에서 3승 2무로 앞서면서 자신감도 넘친다.

하지만 충남아산의 끈끈한 조직력과 양 측면의 활발한 오버래핑을 바탕으로 순간 공세가 매서운 만큼 전남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철벽 수비로 2위에 오른 전남이 화력까지 더해 1위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앱 출시 ... 팬들과 소통 강화

선수단·경기 정보 등 담겨 MOM 빙고 다양한 이벤트

프로축구 광주FC가 생생한 정보 전달과 팬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출시했다.

광주FC 앱에는 선수단 소개와 경기정보, 홈구장 360도 뷰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서포터 멤버십, MOM 이벤트와 같은 콘텐츠가 담겨있다.

이용자가 프로필에 각자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앨범, 캐치프레이즈, 색상, 사진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MOM 빙고 이벤트도 흥미롭다.

MOM 이벤트는 서포터가 직접 선수와 선수를 배치해 빙고판을 제작한 뒤, 매일 출석을 통해 선수카드를 획득해 빙고판을 맞춰가는 게임

이다.

광주는 빙고판을 완성하는 서포터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선수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 달 동안 앱 출시와 창단 11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멤버십 번호 끝 두 자리가 11로 끝나는 서포터 전원에게 스타벅스 디지털세트를 제공한다.

또 멤버십 번호 000011번, 000111번, 001111번, 011111번의 서포터에게는 각각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 경품으로 선물한다.

광주FC앱은 플레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광주FC'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편 광주FC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영원한 바르사맨

연봉 50% 깎고 바르셀로나와 5년 계약 ... 25년간 한 팀에서 활약

리오넬 메시(34)가 연봉을 50% 깎고 2026년까지 스페인 프로축구 '거함' FC바르셀로나에서 뛰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BC, ESPN, 스키스포르츠 등 주요 외신들은 15일(한국시간) 일제히 메시가 연봉을 대폭 깎고 바르셀로나와 5년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메시는 계약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소속팀이 없는 자유계약(FA) 선수 신분으로 바뀌었다. 바르셀로나와 처음 인연을 맺은 2000년 이후 무려 7504일 만에 결별 위기에 빠졌다.

2004년 17세 114일에 1군에 데뷔한 메시는 17시즌 동안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778경기에서 672골 305도움을 작성했다. 구단 역사상

최다 출전, 최다 득점, 단일 클럽 통산 최다골 등을 세우며 '바르셀로나의 상징'으로 활약해왔다.

하지만 메시는 지난해 8월 바르셀로나에 이적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메시와 바르셀로나와 2017년 체결한 마지막 계약은 4년간 5억 유로(약 6784억원)를 받는 것이었다.

다만 메시는 무려 7억 유로(약 9500억원)에 달하는 바이아웃 조항(최소 이적료)을 놓고 구단과 합의하지 못해 결국 팀에 잔류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종료된 메시의 향후 행선지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거리였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9 여파로 빅클럽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메시에게 전문학적인 바이아웃 조항을 맞춰줄 팀들이 끊겨 나타나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구단 수입이 줄면서 메시와 재계약 조건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구단의 총수입과 비교해 선수단 인건비 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에 따라 메시와 마지막으로 체결했던 계약 명세를 도저히 맞춰줄 수 없어서다.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5년 계약을 하면서 기존 연봉의 50% 수준으로 계약하기로 구두 합의를 마쳤다. BBC와 ESPN 역시 "연봉을 대폭 깎고 2026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돈나룸마

'유로 2020 MVP' 골키퍼 돈나룸마 PSG 입단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서 선방 쇼를 펼치며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22)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었다.

PSG는 15일(한국시간) "돈나룸마와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돈나룸마는 AC 밀란(이탈리아) 유스팀을 거쳐 2015년 10월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6시즌 동안 AC 밀란에서 251경기를 소화했다.

2020-2021시즌이 끝난 뒤 계약이 만료된 그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PSG에 새 동지를 틀었다.

22살의 어린 나이에도 돈나룸마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주축으로 뛰는 유망주다.

이탈리아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한 돈나룸마는 2016년 9월 프랑스와 친선경기에서 잔루이

지 부폰과 교체 투입돼 17세 189일의 나이로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데뷔전을 치렀다.

이달 막을 내린 유로 2020에서는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7경기에 출전해 3차례의 무실점을 기록, 단 4실점을 했다. 특히 승부차기로 이어진 스페인과 준결승, 잉글랜드와 결승에서는 선방 쇼를 선보여 이탈리아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돈나룸마는 대회 최우수선수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토너먼트'에도 선정됐는데, 1996년 대회부터 시상한 이 상을 골키퍼가 받은 건 처음이며 이탈리아 선수의 수상도 처음이다.

새 소속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돈나룸마는 "PSG라는 빅클럽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다.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할 준비가 됐다"며 "가능한 한 많이 승리해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선수협 사과에도 싸늘한 팬심 KBO, 근본적 강력 대응 필요

마침내 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의지)가 입을 열었다. 선수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은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국면으로 국민의 고통과 피로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일부 선수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며,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에 모범을 보이고 국민과 팬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선수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수협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단에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하고 이를 꼭 지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지만 야구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선수단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 없이는 프로야구 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매년 KBO는 선수들의 일탈로 흥행을 잃었다.

그 중단사태까지 맞았다.

KBO리그에서 마려한 코로나19 매뉴얼을 완벽하게 지킨 선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선수에게 이번 사태는 '재수 없는' 케이스일 지도 모른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안일함이 더해져 공공연한 '그들만의 문화'가 수면 위로 노출됐다.

리그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되는 상황까지 전개되자 뒤늦게 각 구단과 선수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모양새다.

"야구만 잘하면 된다"라는 암묵적 룰과 함께 '전통 아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리그는 자구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선수, 구단, KBO 모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KBO리그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팬들의 눈높이와 달리 리그 수준은 낮아졌다. 단순한 성적만으로 박수받고 팬들의 발길을 잡는 시대는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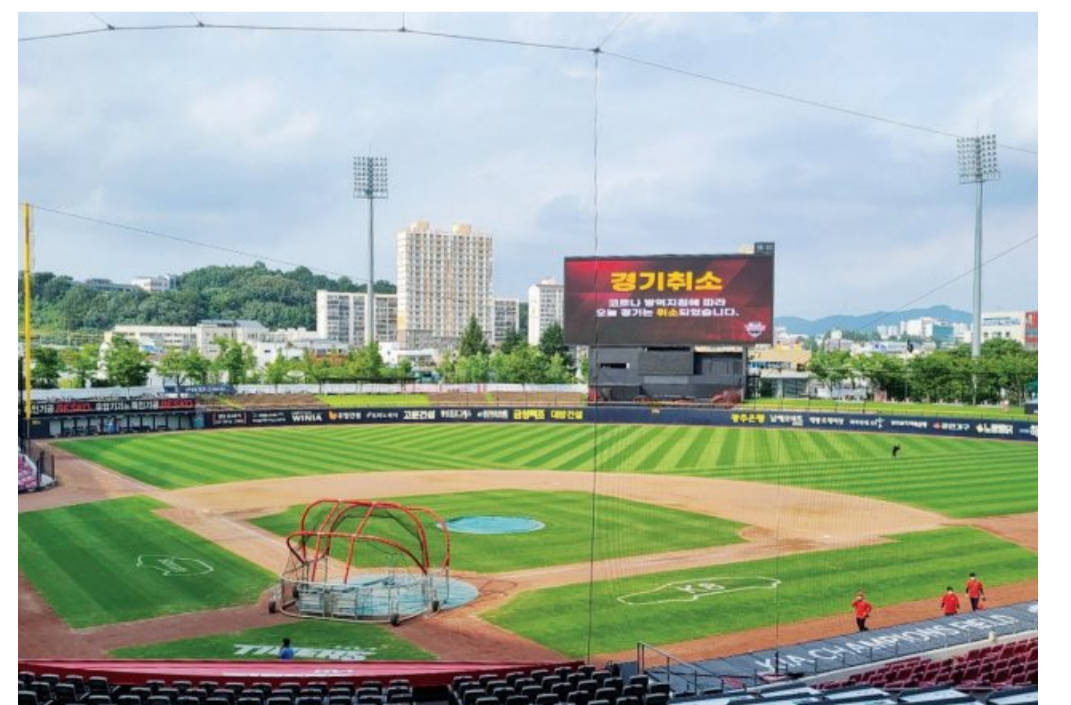
'논 가리고 아웅' 하는 구단과 KBO도 판을 망친 공범이다.

문제의 싹을 자르는 대신 상황 모면에만 골몰하면서 매년 사건-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성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부의 공정성·형평성도 무시되고 있다.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른 건 결국 구단과 KBO다.

이번 사태는 공멸로 가는 벙랑 끝일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그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KBO의 선택에 달렸다.

KBO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방역 지침 위반 관련 상벌위원회를 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두산-NC발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를 맞은 KBO리그가 16일 방역지침 위반 관련 상벌위원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10일 두산 확진자 발생 여파로 KIA 선수단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경기가 취소된 모습.